

기능상변화를 통하여 본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

박진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통화기금〉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 국제무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표방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성원국들에 대한 미제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침투를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85권 19페이지)

국제통화기금은 미제가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딸라의 지배체제를 세우고 점차 전세계에 대한 금융적지배와 략탈을 실현할 목적으로 자본주의렬강들을 사촉하여 조작한 국제통화금융기구이다.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체결된 협상에 따라 조작된 국제통화기금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 국제무역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을 표방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정에 경제적으로 쇠퇴한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이 체제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통화를 딸라에 엮매여놓는 방법으로 딸라에 의한 지배체제를 세우고 통화금융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국은 성원국들에 금의 생산과 수출입, 상품의 수출입, 국제수지, 대외투자, 국민소득, 환률, 환자관리조치, 청산협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게 기구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 성원국들의 통화정책에 간섭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관리조종되는 딸라시세제는 사실상 고정시세제의 실시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딸라의 금교환정지로 고정시세제는 붕괴되고 환자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따라 환자시세가 자유롭게 변동되는 변동시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고정시세제가 붕괴되고 변동시세제로 이행하면서부터 자본주의나라들의 통화거래를 조종하는 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의 기능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기능상변화를 통하여 본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은 무엇보다먼저 성원국들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융자적기능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창설당시 국제통화기금의 기본기능은 성원국들의 환자제도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이었으며 부차적기능으로서 융자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고정시세제의 붕괴로 성원국들의 환자제도를 감독통제하는 기구로서의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약화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리사회는 가맹국들의 국제수지조정과 불공평한 경쟁력우위를 위하여 환자시세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환자시세의 지나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화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맹국들의 환자제도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있으나마나한것으로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리해관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통화의 시세변동을 위한 시장개입을 하였다.

1978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통화기금 제2차 개정협정 제4조에는 각 가맹국들이 금본위제이외의 그 어떤 환자체도도 선택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은 어느 나라의 환자체도가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못하여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하여도 해당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수 없게 되었다. 성원국들의 환자체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라는것은 국제통화기금의 감독통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의적인 《권고》에 불과한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감독통제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융자기능은 보다 강화되게 되었다. 융자기능의 강화는 국제통화기금의 융자방식이 보다 다양화된것으로 표현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융자방식에는 본래 일반융자와 특별융자가 있었다. 여기서 일반융자는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성원국이 출자한 할당액가운데서 아무런 부대조건이 없이 받는 융자방식이며 특별융자는 추가적으로 대부를 요구하는 성원국들에게 일련의 부대조건을 붙여 제공하는 융자방식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은 구조조정융자와 체제이행융자를 중요한 융자방식으로 내세우고있다. 구조조정융자는 1976년 5월 국제통화기금이 소유하고있던 금의 일부를 판매한 자금을 원천으로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이 낮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제공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그들이 이룩한 재부를 헐값으로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속심의 발현인 동시에 국제통화기금이 금융기관화되어간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체제이행융자는 1993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개국 외무상 및 재정상회의결정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로 넘어간 동유럽의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 제공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융자방식을 기본으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수지에서 난관을 겪는 성원국들을 지원하여야 할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이 추구하는것처럼 사회주의위업을 가로막고 경제의 《세계화》를 다그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융자방식들에 붙는 부대조건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적규제와 통제의 완화, 국가기업의 사유화, 시장경제의 도입,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시장개방, 국가의 재정금융정책의 개편 등과 같이 거의다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것들이다.

국제통화기금은 1980년대 중엽이후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루적채무와 국제수지적자의 증대원인이 이 나라들의 경제구조, 경제체제자체에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전면적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계획의 실행을 최우선적인 조건부로 내걸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예측을 강화하는데로 나갔다.

미국은 1997년에 동남아시아나라들의 경제를 틀어쥐기 위하여 국제금융투기업자 쏘로스를 내세워 금융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으며 금융위기를 겪고있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구제융자》를 제공하는 대신으로 이 나라들의 경제제도, 금융체제를 저들의 요구대로 개편할것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경영상태가 불비한 민족은행들을 파산시키거나 외국투자자들에게 넘기는것을 골자로 하는 《자유경제일괄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30억US\$분의 자금제공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무리사를 시켜 신용

대부를 확대하고 리자율을 올리며 금융분야를 가일층 자유화할것을 강요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1997년 7월 중순에 당일대부금리를 7%로부터 40%로, 필리핀중앙은행은 15%로부터 32%로 인상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하라는대로 금융개혁을 진행한 나라들에서는 경제형편이 호전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폐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은행들과 기업들의 대량파산, 실업률증가, 사회적혼란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받는 나라들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수탈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통화기금의 용자는 대부받는 나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는것이 아니라 위기를 격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있다.

기능상변화를 통하여 본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은 다음으로 국제통화관련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있는것이다.

나라들사이의 통화거래를 조종하는 중추기구로서의 국제통화기금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국제통화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원국들사이에 협의하고 해결하는것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 자기의 제일가는 기동으로 내세웠던 미탈라기축통화제의 전면적 위기와 고정시제제의 붕괴, 성원국들에서의 끊임없는 금융위기와 그에 대처할수 없는 무능력은 국제통화관계문제에서의 국제통화기금의 지위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세우고있는 합의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성원국들에 어떠한 국제법적 책임도 규제하고있지 않으며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도 단순한 자금제공중지에 그치고있다.

한편 현시기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와 지역경제협력추세에 편승하여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는 아시아기초투자기금과 브릭스신개발은행의 창설과 같은 지역금융기관들의 출현은 국제통화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각국이 필요한 자금수요를 조건부없는 대부자원으로 충당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위기해결에서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쌍무적 혹은 다무적협상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주요통화관계문제해결에서도 수뇌자회의나 재정상회의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응당 자기가 주동이 되어 취급하여야 할 국제통화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면하면서도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반경제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70년대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진행된 국제통화기금회의를 보면 거기에서는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조정문제를 비롯하여 인플레이억제, 세계경제침체의 해소, 일본 및 도이칠란드에서의 국내수요의 확대, 미국자체로서의 《쌍둥이적자》문제의 해결, 발전도상나라들의 루적채무문제, 지구생태환경문제 등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나라들사이의 통화거래의 안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통화관리기구로서의 국제통화기금은 응당 국제통화거래와 관련되는 문제를 기본토의안건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일반경제문제들에 대한 토의는 주요자본주의나라 재정상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주요자본주의나라 수뇌자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전문적으로 진행

되고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은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나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독점조직으로, 불공평한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성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금융적지배와 경제적침투를 위한 마지막지탱점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감독통제기능보다 융자적기능이 강화되고 통화관련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기능은 더욱더 약화되고있다.

바로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실제적지배자인 미국의 지위저락과 경제적영향력의 저하, 세계적인 딸라리탈현상의 파급과 지역경제협력의 활발한 추진은 국제통화기금체계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세계화》책동에 파렬구를 내고있다.

국제통화기금체계의 오랜 기간의 존재로 하여 미국딸라가 여전히 지배적인 준비통화로 되고있지만 세계적인 딸라리탈현상과 통화관계의 다극화로 하여 국제통화기금의 마지막지탱점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나라의 경제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하는것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이며 낡은것이 사멸하고 새것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법칙이다.

제국주의나라들이 국제통화제도를 좌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새로운 통화금융기구들의 출현으로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낡은 국제통화기구들의 붕괴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력량으로 자라나고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을 옹계 리용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